

# 52시간 근무제·임금피크제... 몸푸는 금융노조, 2년만에 총파업?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결정  
25차례 교섭에도 노사 입장차 여전히  
노조, '노동이사제' 요구 거세질 듯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모인 금융노조.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달 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파업도 찬반투표서 과반수로 가결된 만큼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노사 교섭에서도 최대 현안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여러 쟁점과 묶여 개별 합의는 힘들 전망이다. 또 금감원이 직접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를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 측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1일 오후 긴급 지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25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피크

제 등 주요 안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절차의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에선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도 무난히 가결돼 2년만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노조지부 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지난 2016년 총파업을 결의했을 당시에도 95.7%의 찬성률로 가결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를 선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대표자 회의에서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를 통해 총파업투쟁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시간 근무제 개별합의, "어려울 듯" 특히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노사가 특수직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 도

출에 난항을 겪다 조정이 무산됐다.

지난 4월 산별 노사 대표단 상견례 당시 노조는 사측에 52시간 근무제 외에도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를 다른 쟁점과 분리해 개별적으로 사측과 교섭하는 것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최대 안건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정년연장, 노동이사제 등과 함께 다루려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청년고용 확대와 반하는 안건이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라 내년도 입될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 ◆노동이사제 요구 거세질 듯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시 노동이사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발인 및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 13곳에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입하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로 공언한 바 있고, 지난 9일 윤석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 계획을 밝혀 한풀 꺾었던 노조측의 노동이사제에 요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 조정회의에서 진행했던 안건에 속해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비정상(노동이사제 미시행)에서 정상을 돌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법리적인 기반이 없이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현행법과 저촉되고, 주주권한 침해까지 우려돼 노동이사제만을 두고 선별단합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법개정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도전! GLOBAL 탐방 출정식.

## “대학생 배낭여행 도전을 응원합니다”

### KEB하나은행 ‘글로벌 탐방 출정식’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해외여행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기획된 해외여행지원 프로젝트 '도전! 글로벌(GLOBAL) 탐방'에 선정된 100명과 함께 출정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탐방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의 청년 희망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많은 비용으로 실패 해의 체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배낭여행 비용 지원을 통해 자기 계발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장경훈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은 격려사를 통해 "20대 청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든지 실제로 해보는 실행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라면서 "이번 탐방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와 꿈을 키우고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대 손님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영하나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여 폭넓은 혜택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은행 영업점 업무를 지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청년인턴 프로그램 및 금융권 유일 그룹차원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키우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 우리은행 “여름 휴가철 ‘해변은행’ 이용하세요”

우리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점포 '해변은행'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변은행은 대전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전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은 '제2회 보령 머드 축제' 기간인 이달 13~22일이며, 망상해수욕장은 이달 27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현금입출금과 이체 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리적 위치와 시간적 제약으로 영업점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첨단 장비 갖춘 이동점포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머드축제 등 전국 행사장, 여름철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의 영업체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車보험 사기피해자 7000명에 '30억' 환급

보험계약자 신청 없어도 환급 진행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 통해 조회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30억원이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가 2006년 7월~2018년 5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실적〉

구분	일괄 환급	09.6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5월	환급 누계	미환급 (18.5월)
금액	490	1,642	117	206	172	242	80	2,949	33
인원	908	3,746	334	643	529	692	220	7,072	208
계약	2,971	11,073	975	1,922	1,566	2,139	710	21,356	375

급해주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으로 지난해 말 68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1@



노무법인 정론 임완호 대표노무사(왼쪽부터), KB국민은행 허인 행장,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춘 부사장, 김영익 교수, KB증권 윤경은 사장, 유영하 세무사.

## KB금융그룹 전문가 5명 '외부자문위원' 위촉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신사옥에서 'WM스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WM스타자문단 자문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코노미스트 김영익 교수, 국제금융 분야의 대가 한상춘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부사장, 국제형 승인 1호 미국세무사인 유영하 세무사, 노무법인 정론의 임완호 대표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KB금융의 내부 전문가 그룹인 KB W

M스타자문단과의 교류와 고객세미나 등을 통해 KB의 자산관리 역량을 최고로 유지할 계획이다.

WM스타자문단은 은행·증권·자산운용의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전문가, 은퇴설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PB 중 스타급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고객맞춤형 투자솔루션 제안과 WM 현장 직원 연수, 고객세미나 제공 등 영업현장 지원을 통해 'KB형 자산관리 종합 솔루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금융지주

## 글로벌 경제전망 등 강연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금융지주 및 계열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가 경제전망 및 금융시장 점검'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연자로 나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광열, 김환두 명의 애널리스트는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와 영향, 주요 국가별 통화 전망, 유가 등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 국내외를 둘러싼 이슈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부채와 중국기업 부채, 유럽은행 구조조정 이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협금융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들의 리스크관리 및 심사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임인 NH리스크전문가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금융 허충희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이번 전문가 강연을 통해 전 임직원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 말했다. /안상미 기자